

조선 후기 왕릉 정자각 관리에 대한 문헌적 고찰

-『각릉수리등록(各陵修理騰錄, 1675~1713년)』의 정자각 훼손기록을 중심으로-

A Literary Study on the Management of the JeongJaGak(丁字閣, T shaped building) of the Joseon Royal Tombs in the Late Joseon Dynasty
- Focusing on the JeongJaGak damage record of *Gakneung Suri Deungnok*(Records relating to the repair of royal tombs, 1675-1713) -

홍 은 기

Hong, Eun-Ki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유산전문대학원 문화재수리기술학과 박사수료)

황 종 국

Hwang, Jong-Kook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유산전문대학원 문화재수리기술학과 교수)

장 헌 덕*

Chang, Hun-Duck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유산전문대학원 문화재수리기술학과 명예교수)

Abstract

A literature study was conducted on the management of the pavilion of the royal tomb in the late Joseon Dynasty, focusing on “Gakneung Suri Deungnok(Records relating to the repair of royal tombs)”. This study analyzed the royal tomb management system, organized the types of damage identified in the building, and examined how the damage status was recorded by type. In the above, the records related to the 1675~1713 repair of three JeongJaGak(Geonwonneung, Sungneung, and Mokneung), which are registered as state-designated cultural properties, are summarized in three aspects: management system, damage status, and expression word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royal tomb pavilion was regularly inspected by Observer(觀察使) in spring and autumn, and Surunggwon(守陵官) every 5th, and Servant(守僕) regularly inspected every day and night, and also inspected and reported emergency cases of natural disasters or unexpected damage. Second, the damage status of each building was continuously observed and reported for the continuous maintenance of the buildings in the royal tomb. A total of 75 records of damage to the three royal tombs' pavilion were found to have been most frequently inspected, including 19 cases (25.3%), 14 cases (18.7%), 23 cases (30.7%) of the roof, and 19 cases (25.3%) of the roof. Third, the expression of the damage status is confirmed in various ways, such as separation, separation, burst, damage, excitation, moisture, leakage, and exfoliation. Among them, the main damage records were confirmed due to the separation of the base from the peeling, the furniture, cracks, leaks, leaks in the roof, and the collapse of the roof was able to check the damage records.

주제어 : 조선왕릉, 건축문화재, 정자각, 관리체계, 훼손

Keywords : Royal Tombs, Architectural Heritage, 丁-shaped building, Management, Damage

1. 서 론

조선시대 건축공사와 관련된 기록으로는 영건의궐,

산릉의궐 등 건물 전체의 해체수리, 신축, 중건 등 규모가 큰 공사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 정리한 의궐류가 가장 널리 알려져 있다. 의궐류에는 지속적으로 이뤄진 건물의 훼손이나 문제점 등을 기록하고 있다고 보기엔 어렵다. 반면, 건물의 공사가 이뤄지기 전 건물의 경미

* Corresponding Author : hdjang@nuch.ac.kr

한 훼손이나 문제점 등을 관리하고 기록한 문헌도 ‘등록(謄錄)’으로 전해진다. 등록은 조선시대 관청에서 조치하여 행한 일이나 사실 가운데 중요한 것을 주무관서에서 그대로 기록하여 만든 책¹⁾으로 오늘날의 업무일지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 왕릉 내 건축물의 수리나 관리 내용이 포함되어있는 등록으로는 『각릉수리등록(各陵修理謄錄)』(1675~1713), 『각릉등록(各陵謄錄)』(1716~1735), 『각릉봉심수개등록(各陵奉審修改謄錄)』(1812~1821), 『각릉수개등록(各陵修改謄錄)』(1637~1812), 『건릉개수등록(健陵改修謄錄)』(1805) 등 5개의 등록이 전해진다. 각 문헌들에는 건물 내 일부 누수가 된 내용, 왕릉 봉분과 주변의 잔디를 깎는 내용 등 훼손현황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경미한 수리의 내용, 지속적으로 건축물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일상관리에서 발견되는 소소한 훼손 상황들은 실제 건물이 어떠한 수리들을 거쳐 왔고 영건의례·산릉의례를 작성할 만한 큰 수리가 이뤄지게 되었는지도 연계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의례류가 해당 공사에 대한 큰 내용만을 담고 있다면 등록을 이를 뒷받침해주는 중요한 1차적 기초자료로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당시의 공사 관리체계와 행정처리 등 수리공사의 실상 전반을 이해하는데 유익한 사료이기도 하다.

왕릉 내 건축물이나 관리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에는 산릉도감의례를 통한 시공기술 연구²⁾, 공간구성의 변화 연구³⁾, 장인의 조영활동 연구⁴⁾, 석조물 연구⁵⁾ 등이 있다. 이상명은 산릉의례와 현존하는 정자각 18동을 비교하여 시공기술을 다루는 조직, 관리, 인력, 재료 및 기법 등 분야별·공종별 시공기술을 분석하였으나 조직이나 관리에 있어 상시가 아닌 임시로 구성된 도감을 중심으로 분석되었다. 우희중은 조선왕릉 재실을 중심으로 제실의 조성 과정과 공간구성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신지

혜는 숙종 연간을 중심으로 상장례가 이뤄지는 빈전·산릉·혼전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의례에 따른 공간변화를 주로 다뤘다. 문영식은 산릉의례에 기록된 장인을 중심으로 조직, 노동력, 기술조직, 생산기술 등을 고찰하였다. 노동력 공급방식의 변화와 장인의 수급과 업무를 목수와 석수 중심으로 분석하여 장인의 계보, 장인 종별의 생성과 소멸, 급여체계 등에 관해 연구하였다. 김은선은 조선왕릉 석인상을 중심으로 도상과 유형을 분류하고 산릉도감의례에 기록된 석수, 화원, 조각장의 계보 변화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김상협은 오례의, 의례서, 조선왕조실록 등을 바탕으로 능제의 변화를 통해 왕릉의 배치 방법과 입지 특성을 살펴보고 봉분 안에 설치되는 석실과 능상에 설치되는 석조물의 부재용도, 특징, 구조, 형식 등을 분석하여 축조방식과 변천 과정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차문성은 능침석물의 제작기법과 비석의 각자기법 분석을 통해 석물조성의 역사성을 고찰하고 산릉조성의 석물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조선왕조실록이나 산릉도감의례 등 대표적으로 알려진 조선시대 문헌 기록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관리에 관한 부분보다는 큰 공역이 있을 때 진행된 공사기록, 신축된 건축물과 관련된 분석이 대부분이다.

또한 최근에는 문화재청에서 어떠한 관리운영조직을 꾸려 관리하는지에 관한 연구⁶⁾도 진행된 바 있으나 조선시대의 관리에 대한 부분은 관리부서에 대한 일부분만 살펴 실질적인 관리체계나 기록내용들을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김수연은 궁궐 및 조선 왕릉의 문화재 보수·발전방안 연구를 통해 현재 운영되는 방식을 분석하고 개선·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쪽에 연구의 초점이 있어 조선시대의 관리제도와는 거리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록이 확인되는 가장 이른 시기의 등록을 중심으로 왕릉 정자각의 공사를 위해 이뤄지는 수리 체계 전반에 관해 살펴보고 건물에서 확인되는 훼손유형을 정리해 유형별로 어떤 방식으로 훼손 현황을 기록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의 대상은 건립 이후 이뤄진 관리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왕릉을 관리하는 등록 중 가장 오래된 『각릉수리등록(各陵修理謄錄)』(1675~1713)으로 한정하였으며, 건물은 국가지정문화재로 등록되어있고 정밀실측조사가 진행되어 도면 확인이 가능한 왕릉 정자각 3동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해당 건물은 보물 구리 동구릉 건원릉 정자

1)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한국고전용어사전』

2) 이상명, 「산릉의례 정자각을 통해 본 조선후기 관영건축의 시공기술」,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3) 우희중, 「조선후기 왕릉재실 공간구성의 변천-산릉도감의례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신지혜, 「조선 숙종대 왕실 상장례 실행공간의 건축특성-빈전·산릉·혼전을 대상으로-」,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4) 문영식, 「조선후기 산릉도감의례에 나타난 장인의 조영활동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5) 김은선, 「조선시대 왕릉 석인상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김상협, 「조선왕릉 석실 및 능상구조의 변천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차문성, 「조선왕릉 석물과 비석의 제작기법 연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1

6) 김수연, 「궁궐 및 조선왕릉 문화재 보수·관리 발전방안 연구」,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각, 보물 구리 동구릉 승릉 정자각, 보물 구리 동구릉 목릉 정자각으로 건물의 개요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대상 개요

릉	피장자	조성 (릉)	주요 수리 (정자각)
건원릉 (健元陵)	태조	1408	1586, 1764 ⁷⁾
승릉 (崇陵)	현종 명성왕후	1674(비 1684)	1676, 1805, 1879 ⁸⁾
목릉 (穆陵)	선조 의인왕후 인목왕후	1600, 1630, 1632	1693, 1703, 1745 1749, 1769, 1868 ⁹⁾

2. 17세기 후반 조선왕릉 관리체계

등록에서 가장 쉽게 확인되는 단어는 봉심(奉審)이다. 봉심은 임금의 명을 받들어 왕실의 묘우나 능침을 살피고 점검하는 일을 지칭하는 용어¹⁰⁾로 매년 봄과 가을에 관찰사를 파견하여 점검하는 정기적인 봉심과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봉심, 유사시에 하는 임시적인 봉심 등 관리·조사·점검·수리 등을 포괄적으로 지칭하고 있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 “침묘·산릉·단·묘는 해마다 본조가 제조와 함께 봉심하고, 임금에게 계문한다.(寢廟·山陵·壇·墓 每歲本曹, 同提調奉審啓聞)¹¹⁾”로

7) 건원릉 정자각은 중수 이후 세 차례 중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첫 번째 중수는 1586년(선조 19) 3월이지만 세부적인 중수내용은 알 수 없다. 이후 1708년(숙종 34), 1722년(경종 2), 1728년(영조 4)년 수리를 주장하였으나 시행되지 못한 기록이 확인되었고, 1764년(영조 40)에 이르러 중수가 되며 이와 관련된 의계가 전해진다. 당시 도리 1개, 서까래, 지붕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후 1899년(고종 16) 비각과 정자각을 수리하여 현재에 이른다. 문화재청, 『동구릉 건원릉 정자각 및 비각 수리보고서』, 대전, 2006, 42~43쪽 참조.

8) 승릉 정자각은릉 조성 당시 건립된 후 1674년(숙종 3), 1805년(순조 5), 1879년(고종 16)의 수리기록이 확인되며 그 후 1993년 회침골 보수, 1998년 연목이상 해체보수, 2000년 전돌교체, 2009, 10년 양성해체 및 기와보수, 2012년 탈락벽체보수 및 동측 계단 2개소 드잡이 공사가 시행되었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해체수리공사가 진행되었다. 문화재청, 『구리 동구릉 승릉 정자각 정밀실측조사보고서』, 대전, 2013, 66쪽 참조. 문화재청, 『동구릉 승릉 정자각 보수공사 수리보고서』, 대전, 2021, 58~59쪽 참조.

9) 목릉 정자각은 1693년(숙종 19) 정자각 양상도회, 1703년(숙종 29)·1745년(영조 21) 기둥 2개 교체공사 ·1749년(영조 25)·1769년(영조 45)·1868년(고종 5)의 보수기록이 확인된다. 실측조사보고서에서는 승정원일기, 의계 등을 통해 연혁을 정리하였으며 작은 규모의 사초보수는 제외한다고 설명하고 있어 경미한 수리는 제외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문화재청, 『구리 동구릉 목릉 정자각 정밀실측조사보고서』, 대전, 2013, 60~65쪽 참조.

10)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1) 『경국대전(經國大典)』禮典-奉審

정의되어 있다. 국가적으로 왕릉을 관리하는 제도를 규정화하고 있던 것으로, 박석(薄石)·사초 등 왕릉 내 봉심 이외에 종묘의 옥관·축책 및 고명·실록의 개정과 포쇄 등도 봉심에 해당하였다¹²⁾.

문헌에서 확인되는 왕릉의 봉심은 정기적인 봉심보다는 비정기적인 사항들이 더 많았으며, 틈틈이 문제가 확인되는 사례들은 별도로 보고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정기적인 봉심에는 봄·가을에 관찰사가 시행하는 봉심과 매 5일마다 참봉이 실시하는 봉심, 매일매일 밤낮으로 수복이 살피는 봉심 등이 있다. 당시 비정기적인 사항으로는 큰바람이 불거나 큰 비, 큰 눈이 올 때, 탈이 발견되었을 때, 훼손이 커 수리가 정해졌을 때는 수리 전까지 매일 살피는 봉심 등이 해당한다. 왕실의 능(陵), 원(園), 묘(墓)를 지키는 일을 맡아보도록 수호군(守護軍, 수릉군)¹³⁾과 수릉관(守陵官)¹⁴⁾을 두어 훼손이 발견되면 바로 상부에 알리는 조취를 취하는 일이 대부분이었다. 우선 문제가 생긴 사항에 관해 수릉군이 참봉에게 보고하면 참봉(종9품)이 상급 관아로 보고하는 문서인 첩정(牒呈)을 예조에 올리게 된다.

初二日 穆陵, 參奉 李慶霽 入直守護軍 崔季奉 等 五名 逢點

초2일 목릉, 참봉 이경홀이 임직하는 수호군 최계봉 등 5명에게 점검사항을 받음¹⁵⁾

그 후 해당 예조에서는 받은 문서 내용 중 중요한 부분만을 뽑아 정리(節呈)한 후 임금께 보고하는 방식으로 문서를 처리하였다. 예조 내에서는 정랑, 좌랑 등 당하관(낭청)이 문서를 살핀 후 당상에게 보고하고, 임금께 보고하는 담당자는 예조의 당상인 판서, 참판, 참의 등이 수행하였다. 정랑, 좌랑 등은 직접 현장에 가서 해당 문서의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는 일도 함께 수행하였고, 그 후 해당 안건의 사실이 확인되면 상관인 참의, 판서 등에게 보고하였다.

曹單子節呈, 健元陵參奉牒呈內. 本陵丁字閣西邊簷上所排雜象三箇 夫防草五張 女防草四張 女瓦六張 今月二十六日風雨時, 墜落修改事, 牒呈是白置有亦. …

12) 『경국대전(經國大典)』禮典-奉審

13) 세종 때 서반 5품을 수호군에 임명하였으며, 수호군의 이름을 수릉군으로 고쳐 부르기 시작함; 세종실록 권 제108, 세종 27년(1445)/5/6

14) 조종조에는 수릉관을 무관으로 임명하기도 하였는데, 중세 이래 문관만 임명하였으며 정2품 중 늙은 부모가 없는 자를 임명하였다.;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한국고전용어사전』, 제정리

15) 『각릉수리등록(各陵修理謄錄)』 제2권, 1677/10/초4(음력)

예조 단자에서 절정(節呈)한, 건원릉 참봉이 첩정한 내용입니다. 본릉 정자각 서쪽 처마 상부의 잡상 3개, 수막새 5장, 암막새 4장, 암키와 6장은 이번 달 26일 풍우 때 추락하여 수개할 일을 첩정하였습니다. ...16)

大臣·備局堂上 引見入侍時 行禮曹判書呂聖齊 所啓 ...

대신과 비변사 당상을 인견, 입시하였을 때 예조판서 여성제가 아뢴 바는...17)

봄과 가을 정기적으로 왕릉을 관리하기 위한 정기점검에서는 관찰사(監司)가 해당하는 지역의 능을 봉심하여 고사, 토벽 박락, 퇴색, 균열 등 훼손 현황을 승정원에 보고하였고 승지가 임금께 보고하기도 하였다. 보고하는 문서에는 점련(粘連)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는 문서를 제출할 때 덧붙여지는 첨부문서를 의미한다. 사안이 중요하거나 시급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좌의정, 우의정, 판중추부사 등 종1품의 높은 관직의 관리가 직접 임금께 사안을 보고하였다.

左議政 閔鼎重 請對入侍時 左議政閔 所啓...

좌의정 민정중이 청대하여 입시한 때, 좌의정 민이 아뢴 바는...18)

결국, 해당 사례들을 보았을 때 왕릉의 점검 보고체계는 다음 <그림 1>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을 것이다. 상시 또는 비상시 모두 왕릉에서 조정으로 보고한 후 임금께 보고되는 순서를 따랐으며, 그 외 사안이 큰 건에 관해서는 종1품이 직접 임금께 보고드리는 체계를 갖추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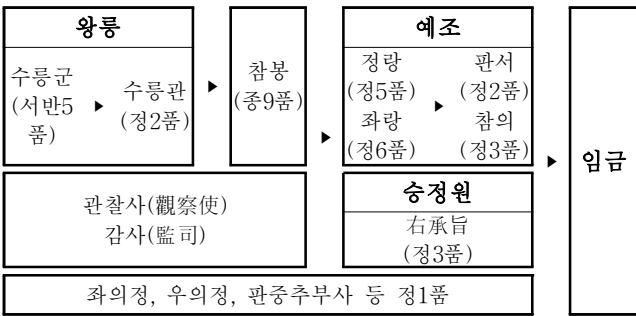


그림 1. 왕릉 점검 보고체계

임금께 올려지는 문서에는 왕릉 내 훼손 현황뿐 아니라 수리를 어떤 의례로 처리하여야 할지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었다. 이를 통해 훼손의 보고 후 공사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16) 『각릉수리등록(各陵修理謄錄)』 제1권, 숙종 원년(1675)/윤5/29

17) 『각릉수리등록(各陵修理謄錄)』 제4권, 숙종 8년(1682)/2/17

18) 『각릉수리등록(各陵修理謄錄)』 제4권, 숙종 10년(1684)/3/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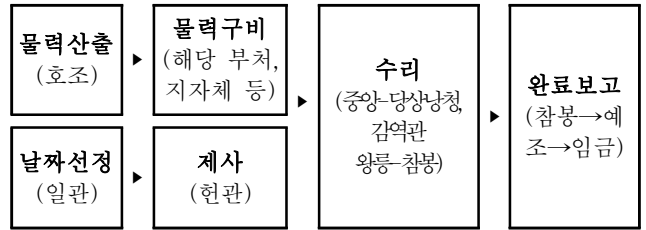


그림 2. 조선왕릉 수리체계

임금께 보고가 끝나고 수리의 허가가 내려지면 예조는 호조에 협조 요청을 통해 호조(戶曹)의 산원(筭員)을 현장에 파견하여 수리 시 필요한 물력 산출을 진행19)한다. 그 후 산원의 산출내역에 따라 일부는 궁 내에서, 일부는 경기도 내 읍·면에 물력 조달을 받아 수리 준비를 하게 된다. 일관(日官)에게 여러 길일을 선별 받아 제사를 지내고 공사를 실시20)하였다. 제사를 올리는 사유를 먼저 고하는 제사인 선고사유제(先告事由祭), 역의 시작을 알리는 시역고제(始役告祭), 수개를 알리는 수개고유제(修改告由祭) 등이 있다. 공사의 일정은 국상 등 나라의 큰일이 있거나 수리할 곳이 많은 경우에는 이에 맞춰 수리 일정을 조율하기도 하였다.21) 능에서는 주로 참봉이 감역을 겸하여 상시감독을 진행하였고 중앙에서는 예조의 당상·낭청과 선공감에서 별도로 감역관을 정하여 거행하기도 하였다.

依前例各其本陵奉參兼監役稱號, 吉日時良中趨即舉行爲白乎旆, 順懷墓修改時, 令繕工監別定監役官舉行爲白乎矣.

전례대로 각 본릉 참봉을 감역을 겸하는 것으로 칭하여 부르고, 길일에 즉시 거행하며, 순회묘 수개 시에는 선공감에서 별도로 감역관을 정하여 거행하겠습니다.22)

공사가 완료되면 참봉은 다시 완료 내용을 예조에 보고하고, 예조에서는 임금께 보고하는 절차 과정을 거친다.

19) 『각릉수리등록(各陵修理謄錄)』 제1권, 숙종 원년(1675)/3/13 今初十日, 移文於戶曹, 卽令起送筭員筭摘修改時所入雜物 ... 금일 초10일 호조에 이 문하니 산원을 보내어 수개 시 들어가는 잡물을 계산하도록 하고, ...

20) 『각릉수리등록(各陵修理謄錄)』 제2권, 숙종 3년(1677)/2/19 向前修改吉日, 令日官推擇, 則來三月初四日辰時, 先告事由祭, 同日寒食祭兼行事, 擇報爲白有旆, ... 전에 수개(修改)하는 길일은 일관으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였는데, 다음달 3월 초4일 진시로 먼저 고하는 사유제는 같은 날 헌식제와 겸하여 진행할 일을 택하여 알렸사오니, ...

21) 『각릉수리등록(各陵修理謄錄)』 제1권, 숙종 원년(1675)/2/초9 昌陵丁字閣重建事定奪已久連值, 國恤尙未舉行, 而且齊陵·光陵·禧陵亦皆有修改處, 而當此之時似難一時修改, 待秋爲之似或宜矣. 장릉 정자각을 중건하는 일이 결정되지는 오래되었고, 국휼을 아직 거행하지 못하였고 또한 제릉, 광릉, 희릉 모두 개수할 곳이 있는 듯하니 마땅히 일시에 수개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으니 가을을 기다려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22) 『각릉수리등록(各陵修理謄錄)』 제5권, 숙종 12년(1686)/2/13

표 2. 1673~1713년 건원릉 정자각 훼손 현황

건	일자	위치				훼손 원인	훼손 표현	세부내용	비고
		가부	가부	지붕	의장				
1	1675/윤5/29			기와		風雨	墜落	이번 달 26일 비바람이 불 때, 추락한 것을 수개할 일.	
2	1678/1/23		부연			-	雨漏·腐破	누수는 전면 서쪽 처마 밑 부연 1개, 후면 동쪽 처마 밑 부연 1개로, 부후하고 파손된 곳	
3	1678/6/초2		부연	기와		-	雨漏	동쪽 회침 부연 3개·수막새 2장, 후면 서쪽 박공 상부부연 3개·잠상 3개·수막새 6장·압막새 5장, 동쪽의 누수가 있는 곳	
4	1679/8/22	계석 포전				-	動退·剝落 破傷	계석 서쪽 상하 모서리 20개, 동쪽 13개는 연결된 곳이 떨어져 돌의 회를 칠한 곳이 벌어졌고 또한 두루 박락되었고, 계단 상부 포전 90넓은 깨져 상했음	
5	1680/8/13		부연 연목	양상	단청	-	漫漶·滲濕 剝落	후면 단청이 흐릿함이 있고, 부연 3곳은 습기가 스며들고, 양토 곳곳은 박락되었으며 동쪽 연목은 1곳에 습기가 스며들고, 양상도회 곳곳이 박락되었음	
6	1682/2/17	계석 포전			단청	-	漫漶·剝落 孔隙	단청이 희미하고 더러움이 더해져 무색이고, 계석은 회를 바른 곳곳에 박락으로 터지고, 포전은 또한 구멍이 많아...	
7	1682/7/15	계석 포전		양상	단청 양벽	연수	剝落·漫漶 孔隙	양상도회 곳곳이 박락되고, 정자각 내외 단청 및 양벽은 여러 해가 지나 오래되어 흐려지고 박락되었고, 4면 상하 계석은 회바른 곳이 떨어져 곳곳이 박락되었고, 전면 계석·포전이 인접한 곳은 또한 공극이 있어 수개할 일.	
8	1683/7/24		박공 부연			비	雨漏·傾倒 滲漏	정자각 후면 서쪽 목기연 1개는 누수로 기울었고, 전면 동쪽 부연 사이 1곳과 서쪽 부연 끝 1곳이 물이 스며들	
9	1685/7/29			양상		-	剝落	양상도회 거의 박락되었고, ... 철쇄하여 수리할 일	
10	1697/7/11	계단				-	隙·剝落	정자각 신문 외부계단의 회를 칠한 것이 벌어졌고 또한 박락되었음	7.13/16. 상동
11	1698/8/초5				단청	-	滲色	건원릉·목릉 정자각 등 단청이 희미한 곳은...	
12	1698/3/초6	계단 계석				-	動退·漸退	정자각·어로의 층계는 조금 이격되었고, 북쪽 계석은 곳곳이 차차 퇴락함	
13	1698/8/초4	계단 방전		양상	단청	-	滲色·剝落 破碎	정자각 건물 내외 단청이 퇴색되었고, 양상도회·3층 계단에 바른 회가 곳곳이 박락되었고, 방전 곳곳이 파손되었음	
수량(건)		8	4	6	5				
계(건)		23							

3. 정자각의 훼손 현황과 양상

1675년부터 1713년까지의 건원릉, 숭릉, 목릉의 정자각 훼손 현황 기록을 건물 위치에 따라 기단부, 가구부, 지붕부, 의장 등 4분야로 구분하여 그 훼손 현황을 살펴보았다. 기단부는 기단, 계단과 이에 사용된 전돌, 박석 등을 포함하였고 가구부는 기둥, 대량, 추녀 등 주요 골격재뿐 아니라 연목, 부연 등 목재로 구성된 전체를 포함한다. 지붕부는 기와가 얹히는 연합 이상으로 기와, 내림마루, 용마루 양상도회까지를 포함하고 의장은 건물의 구조체가 구성된 후 이뤄지는 공정으로 벽체공사, 단청공사 등의 내용으로 분류하였다.

3-1. 건원릉 정자각의 훼손

건원릉 정자각은 총 16일 26건의 기록에서 정자각 훼손 현황과 관련된 기록이 확인되었다. 23건은 각 분야별로 기단부 8건, 가구부 4건, 지붕부 6건, 의장 5건이다.<표 2>

기단부는 계석과 방전에 관한 부분이 주를 이룬다. 계석(階石)은 개별 건물의 기단 또는 일곽의 공간을 나

누는 대(臺)를 쌓을 때 사용하는 장대석 모양의 돌²³⁾을 의미한다. 계단과 계석 관련 내용은 모두 계석의 이격으로 인해 돌 사이에 발라두었던 회가 박락되는 현상이 발생한 내용²⁴⁾이다. 방전(方輦)은 포전(鋪輦)으로도 설명하고 있었으며, 상하고 파손된 현상 자체를 설명²⁵⁾하거나 공극이 있어 비가 올 때를 염려하여 수개가 필요함을 밝히는 내용²⁶⁾이다.

가구부와 관련된 4건은 모두 지붕가구를 구성하는 연목과 부연 부분으로 누수로 인한 훼손이 확인된다. 부연은 전면 서쪽과 후면 동쪽(1678.1.23.), 동쪽 회침부(1678.6.초2.), 전면 동쪽(1683.7.24.)으로 매번 다른 위치에 훼손이 발생했던 것을 알 수 있다. 박공상부연(朴工

23) 경기문화재단, 『화성성역의례 건축용어집』, 경기, 2007, 253쪽

24) 『각릉수리등록(各陵修理謄錄)』 숙종 5년(1679)/8/22 ; 숙종 8년(1682)/2/17 ; 숙종 8년(1682)/7/15 ; 숙종 23년(1697)/7/11 ; 숙종 24년(1698)/3/초6 ; 숙종 24년(1698)/8/초4 ; 숙종 39년(1713)/2/13 ; 숙종 39년(1713)/3/초8

25) 『각릉수리등록(各陵修理謄錄)』 숙종 5년(1679)/8/22 ; 숙종 8년(1698)/8/초4 ; 숙종 39년(1713)/2/13

26) 『각릉수리등록(各陵修理謄錄)』 숙종 8년(1682)/2/17 ; 숙종 8년(1682)/7/15

42 논문

上浮椽)은 박공 상부에 위치하는 부연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박공에 결구되는 목기연으로 추정하였다.

표 3. 건원릉 정자각의 1713년 가구부 훼손

일자	위치 가각	훼손 표현	세부내용	비고
1713/ 3/초8	창방 동자주	離退 欹側 退出 圯退 自潰	殿內昌防離退 童子柱欹側處 與前無異是白乎跡, 四面階砌石退出處 流來執頃, 而今春解凍時東西南三面尤爲圯退幾至自潰是白齊. 전각 내 창방이 이격되어 동자주가 기운 곳은 전과 다름이 없으며, 사면 계체석의 이격된 것은 탈이 있어, 이번 봄 해동 시 동·서·남 3면이 더욱 이격됨이 거의 무너짐에 이르렀습니다.	경기감 찰사
1713/ 9/23	창방	離退 欹側 剝落	殿內昌防離退 童子柱欹傾處與前無異是白齊, 健元陵丁字閣樑上塗灰剝落等有頃處 전각 내 창방이 이격되어 동자주가 기운 곳은 전과 다름이 없으며, 건원릉 정자각 양상도회의 박락 등 탈이 있는 곳이 있음	

1713년 확인되는 가구부의 훼손 2건은 창방과 동자주에 관한 내용이다. 1713년 3월과 9월 모두 이전에 확인되었던 것과 다름이 없다고 표현하고 있다. 수리등록의 기록이 남겨지지 않은 1700~1712년 사이에 훼손이 확인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과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에서 추가 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다. 1707년 11월 기울어진 동자주에 화재가 났음에도 훼손이 없는 동자주였고, 새것으로 바꾸는 것보다는 옛 부채를 유지하는 것으로 수리의 방향을 잡게 된다.

… 臣詳細奉審, 則柱礎柱木, 不爲傾圯, 而四面道里以上, 以童子柱欹傾之故, 昌防學皆退出, 雖無即今傾圯之患, 所見極爲未安, 而此乃近三百年前所建之閣, 自前或隨毀修改, 而未有一新改建之時矣. … 聞匠人之言, 撤瓦則可正童子柱云. 若然則不必捨舊, 易新材而仍舊改修, 似宜矣.

신이 상세히 봉심하니, 주초(柱礎)와 주목(柱木)이 무너지지 않았고, 사방의 도리 이상은 동자주가 기울어졌기 때문에 창방이 모두 틀어졌지만 지금 즉시 무너지는 우려는 없고 보기에만 온당치 않았습니다. 이는 바로 300년 전에 세워진 건물이 전부터 훼손이 있으면 수개하였고 새로 건립한 적은 없기 때문입니다. … 장인의 말을 들으니 기와를 걷으면 동자주가 바르게 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굳이 옛것을 버리는 것은 필요치 않고 신재를 옛것으로 개수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²⁷⁾

27)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숙종 33년(1707)/11/4

1708년 8월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왜적의 병화가 미치지 않은 것은 신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으로 대수롭지 않게(輕易) 여기고 수리할 수 없다는 내용이 기록²⁸⁾되어 있다. 이 당시부터 1722년까지도 추가의 진행이 없이 기울어짐은 유지되었다.

훼손에 대한 상세한 위치와 범위는 정전 제1칸 종량(宗樑) 하부 북쪽 동자주인 창방목(昌防木) 동쪽머리 1치9푼, 종보(終樑) 위 북쪽 도리목(道里木)의 서쪽머리는 2치, 남쪽 창방목 동쪽머리는 1치 9푼, 제2칸 종량 하부 창방목은 서쪽 머리 9푼, 제3칸 종량(宗樑) 하부 창방목의 서쪽 머리 2치, 남쪽 장혀머리 9푼이 물러나 있는 것(退出)으로 조사되었다.

… 則正殿第一間宗樑下北邊童子柱欹傾, 昌防木東頭退出一寸九分, 終樑上北邊道里木西頭退出二寸, 南邊昌防木東頭退出一寸九分, 第二間宗樑下昌防木西頭退出九分, 第三間宗樑下昌防木西頭退出二寸, 南邊長舌西頭退出九分, 而其他月廊及礎石等有頃處, 與前無異. …

… 정전(正殿)의 첫째 칸 종량(宗樑) 아래 북쪽 동자주가 기울어졌고, 창방목(昌防木) 동쪽 머리는 1치 9푼 물러났고(退出), 종보(終樑) 위쪽의 북쪽 도리목(道里木)의 서쪽머리(西頭)는 2치 물러났고, 남변 창방목의 동쪽머리(東頭)는 1치 9치 물러났고, 제2칸 종량 아래 창방목 서쪽머리는 물러났고, 제3칸 종량 아래 창방목 서쪽머리는 2치 물러났고, 남변 장혀 서쪽머리는 9치 물러났으며, 그 밖의 월랑 및 초석 등 탈이 있는 곳도 전과 다름이 없습니다. …²⁹⁾

또한 훼손 현황은 이전과 다름이 없다고 기록하여 1707년 조사되었던 정자각 가구부의 훼손이 15년 가까이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지붕부는 양상도회의 박락이 7건 중 5건에 해당하였고, 2건은 기와 관련으로 추락한 것과 누수와 관련된 위치였다. 의장에서는 다섯 건 모두 단청이 희미해진 현황에 관한 내용이었다. 양벽/양토에 대한 부분이 박락 또는 희미해짐으로 단청과 함께 나오고 있는데 이는 초벌·재벌 후의 정벌재가 탈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정자각은 수리기록이 전해지는 1764년 건원릉의 수리가 이뤄질 때까지 경미한 수리만 이뤄지며 관리됐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확인한 수리등록의 시기가 1713년까지로 한정되어 있어 더욱 자세한 건물의 훼손 현황 분석을 위해서는 향후 『각릉등록(各陵謄錄)』

28) 『숙종실록(肅宗實錄)』 숙종 34년(1708)/8/9 ; 以倭火不及, 素稱神佑, 不可輕易毀改爲言, 上從之. 왜적(倭賊)의 병화(兵火)가 미치지 않은 것은 본시 신령(神靈)의 도움이라고 일컫고 있으니, 경이(輕易)하게 헐어 고칠 수 없다고 말하므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29)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경종 2년(1722)/3/22

(1716~1735), 『각릉수개등록(各陵修改謄錄)』(1637~1812)에 기록된 내용도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승릉 정자각의 훼손기록은 건원릉과 목릉에 비해 그 수가 많다. 기록은 건물의 위치별로 기단부 10건, 가구부 8건, 지붕부 11건, 의장 9건 등 38건이 확인되었다. <표 4> 기단부는 계단과 박석 등에서 부재 사이의 틈이 벌

3-2. 승릉 정자각의 훼손

표 4. 1673~1713년 승릉 정자각 훼손 현황

건	일자	위치				훼손원인	훼손표현	주요내용	비고
		계단	가구부	지붕부	의장				
1	1675/3/초1	계단 박석		옥개부	연목	-	罅隙·滲色 執頃	계석·하박석의 틈이 벌어짐, 정자각 연목 간 사이사이 색이 희미한 곳이 있고, 옥개부 곳곳에 탈이 있음	參議李翊相
2	1675/5/19	박석	회침	옹기투기와		비	雨漏·折墜 衝破·崩頽	정자각 동서 옥마루 및 남쪽 회침 3곳에 비가 새고, 북쪽 처마 압막새 1장이 깨져 떨어졌고, 계단 하부 좌우 마당은 산 위의 물이 뒤엎혀 과속되어 박석이 다수 깨짐.	
3	1675/5/21		연목 회침	옹기투기와		누수	雨漏·流濕 剝落·浮動 頽落·浮起 細拆	연목머리에도 습기가 있고, 남쪽 회침 1곳의 누수로 정분을 칠한 곳에 박락이 있고, ... 전각 내 3면 화방벽의 사벽이 들떠(浮動) 퇴락을 면하지 못하였고, 정전 외부 전면 도리 및 합각 사벽이 곳곳이 들뜸으로 세밀하게 터져, ...	正郎
4	1675/5/22		산자현 회침			누수	雨漏·剝落	정분을 바른 곳이 박락됨	
5	1676/5/초2				벽체	-	剝落	정자각 내 동쪽 사벽에 박락되는 형세	
6	1676/7/초2		기둥		벽체	-	頽處	처마의 연목을 지지하는 기둥과 전각 내 화방사벽에 탈이난 곳	
7	1677/2/19			양상		凍拆	剝落·凍拆	양상도회 서·남 두 곳은 겨울을 지나며 얼어서 터짐	
8	1677/3/초2	박석				水流	衝破	산수가 박석의 아래에 유입되 깨어져 ...	
9	1678/3/19	중계석 전돌				隙	動退·破碎	동쪽 중계석에 틈이 생겨 깔린 전돌이 기울어 벌어져 이격이 있어 ... 전면 중계석 위에 깔린 전돌 24장이 깨어져 부스러짐	
10	1678/9/17/	중계석 전돌				隙	傾陷·破碎	북쪽 중계석에 틈이 생겨 문제가 생긴 곳과 전면 중계석 위에 깔린 전돌 24장이 깨어져 부스러진 곳	1679.7.15. 상동
11	1679/8/초6	포전 전돌 기초				雨漏	沾濕·傾陷 下陷	본릉 정자각 8곳에 누수가 있고, 북쪽 아래 계단 상부 포전 40년이 훼손되어 전돌 하부의 쌓은 흙이 처져(下陷) 구멍이 완성된 곳이 있고, 계단 하부에 빗물이 침투한 흔적이 3곳에 있고, 초4일 큰 비로 전각 내 5곳에 누수의 흔적이 나타남	
12	1680/8/초10	박석				湧出	傾側	정자각 전면 계단 하부와 연결한 곳과 서쪽 마당계단 하부에 지하수가 용출해 흘러 서쪽 박석 상부에 닿았는데, 그 흐르는 물의 아래는 박석의 진토가 있어 훼손된 박석으로 기울어짐에 이르름.	8.13. 상동
13	1680/8/15				단청	-	漫漶	능 정자각 내 서벽 회록칠은 3,4자 혹은 1,2자인 3곳이 희미해 ...	1681.3. 초9. 상동
14	1682/7/17			양상		雨水	剝落	양상도회에 연달은 빗물로 박락이 다하였음	
15	1684/3/13	계단 방진		양상	단청	-	動退·折傷 剝落·漫漶	양상도회에 있는 박락된 곳, 계단에 이격이 있는 곳, 방진이 깨진 곳, 단청이 희미한 곳	
16	1685/3/19			양상		凍浮	脫落·細隙	양상도회는 겨울을 지나며 동결융해된 곳이 모두 탈락하였고, 그 사이에 조각조각 떨어지지 않은 곳은 가는 틈새가 세로가로 있음	
17	1686/2/20			옥개부 양상		비	凍拆·細隙 剝落	전각 내 남쪽 제6 연목 하부가, ... 이번 내리는 비로 인하여 누수의 흔적이 있으니 ... 양상도회는 ... 새것과 옛것의 회가 서로 보완된 곳은 모두 세밀한 균열이 발생해, 비가 지난 후 그 균열이 점점 커져...	
18	1697/2/26			양상		-	剝落	양상도회 전후면, 내림마루 상부도회 곳곳이 박락됨	
19	1679/8/초5				단청	-	滲色	건물 내 네 벽 단청 곳곳이 희미함	1698.8. 초5. 상동
20	1698/6/14		연목			비	滲漏濕污	정자각 내 동편 대량 내 제4번째 연목에 습기가 배어 젖고 더러워짐	
21	1699/2/29		추녀	양상		-	剝落	양상도회 후면 6자, 전면 10자 정도 박락됨, 동편 상하 추녀는 전후면 전체가 박락됨, 서편 상 추녀는 전면 9자 정도 박락됨	
22	1699/4/23		대량 동자주			-	罅隙·橫拆 順拆	전각 내부 남쪽 대량 보머리에 양 동자주가 놓인 위치에 남쪽 가로균열에 틈이 나타나고 있고, 동 대량의 서쪽 역시 가로균열의 흔적이 있으나 남쪽의 현상과 같지 않아 ... 나무에 이어져 터진 곳이 있으니 ... 양 대량 내부에 서로 만나는 곳의 이격 또한 틈이 있음	5.11./ 9.13. 상동
23	1713/3/초 8			양상	단청	-	剝落·頽圯	양상도회 곳곳이 박락, 건물 내외 및 회침부연 단청이 쇠퇴	
수량(건)		10	8	11	9				
계(건)		38							

어지거나 부재 자체가 깨지는 등의 훼손이 확인된다. 부재 사이의 경우 틈이 생기며 부재가 기울고, 그로 인해 부재 자체가 깨지는 등의 연쇄작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박석의 훼손된 원인으로는 하부에 물길이 지나기 때문으로 조사되었다.

가구부는 연목, 선자연, 회침 등 지붕부와 연결되는 부분은 지붕의 누수가 그대로 가구부까지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699년부터는 대량이 균열이 확인된다. 1699년 4월 처음으로 대량의 훼손이 발견되고 그 후 동일한 훼손 현황을 기록한 내용이 같은 해 5월과 9월에 임금께 보고되었다. 5월의 기록³⁰⁾과 9월의 기록³¹⁾에서 대량 균열의 길이가 2치 정도 증가함을 보였지만, 다른 위치는 모두 균열의 피해가 커지지 않은 모습으로 조사되었다. 이런 지속적 조사를 통해 승릉 정자각 대량의 훼손은 1,2년 내 지속해서 피해가 커지지 않을 것으로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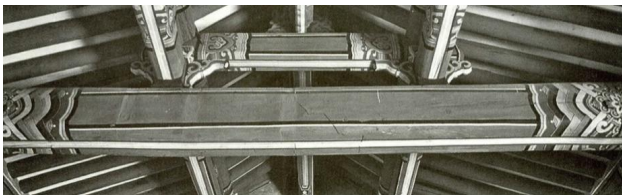


그림 3. 2013년 정자각 대량 균열(출처: 문화재청, 『구리 동구릉 승릉 정자각 정밀실측조사보고서』, 2013, 143쪽)

2020년 현재 정자각은 대량의 균열과 창방의 흰개미 피해 등의 문제로 완전해체수리를 진행하고 있으나, 대

표 5. 1673~1713년 목릉 정자각 훼손 현황

건	일자	위치				훼손 원인	훼손 표현	세부내용	비고
		계단	가구	지붕	의장				
1	1677/10/초4				단청	-	정전 및 월랑 전후 4면을 아울러 단청을 고치고, 양토 역시 칠하는 것을 모두 고쳐, 단청을 명료하게 새로 채색함	보수	
2	1680/8/초10		대량			-	滲漏	오른쪽 제2 대량 상부와 신문 내 어상 근처에 습기가 진행되는 흔적이 있음	
3	1680/8/13					비	雨漏	전각 내 비가 샌 양 곳은 모두 이미 습기의 흔적이 있음	
4	1683/8/16		기둥	양상도회 개와	단청	-	剝落·破傷 漫漶·罅隙	양상도회 곳곳이 박락되고, 기와 곳곳이 파손되고, 처마 내 단청이 사이사이 희미하고, 건물 벽면주가 갈라짐	
5	1685/4/12			양상도회		-	剝落	양상도회는 역시 많이 박락되어 수개월 일.	
6	1685/5/초5			양상도회		-	剝落	양상도회의 박락된 곳	1688.3.초 6. 상동
7	1698/8/초4	계단		양상도회	단청	-	滲色·剝落	정자각 외면 단청이 희미하고, 양상도회·3층계단의 회칠이 곳곳이 박락됨	8.35상동
8	1713/3/초8				단청	-	滲色·傷破 稀疎	정자각 서쪽 대량 위 단청이 희미함	
9	1713/9/23				단청 벽	-	滲色·傷破 綻破·稀疎	정자각 서편 대량 상부의 단청이 희미하고, ... 전 내 동북 양 벽이 찢어지고 터짐	
수량(건)		1	2	6	5				
계(건)		14							

30) 『각릉수리등록(各陵修理謄錄)』 숙종 25년(1699)/5/11

31) 『각릉수리등록(各陵修理謄錄)』 숙종 25년(1699)/9/13

량의 균열은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훼손으로도 알려진 부분이었다. 건립 이후 훼손이 발견되어 힘을 받는 기둥을 놓았던 흔적 또한 건물 내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붕부의 훼손은 가구부와 연관되는 누수 2건을 제외하고 모두 양상도회의 박락과 관련된 내용이다. 박락이 일어나는 원인으로는 겨울을 지나며 동결융해로 인해 터지고 떨어진 부분, 빗물로 인한 훼손, 보수한 곳에서 발생하는 균열과 이로 인한 박락 등 3가지 정도의 원인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의장에서는 1676년 벽체의 박락 내용과 1680년 이후 단청의 희미함에 관한 내용 등 2가지 내용이 확인되었다. 벽체는 동쪽 사벽의 박락이 5월에 조사되었고, 그 후 7월에 화방사벽의 훼손된 곳에 대한 기록이 확인되는데 2개월 사이에 추가적인 훼손이 발생한 것으로 해석하기 보다는 동일한 위치의 훼손에 대한 기록으로 추정된다.

3-3. 목릉 정자각의 훼손

목릉 정자각은 총 11일 14건의 훼손기록이 확인되었다. <표 5> 위치별로 기단부 1건, 가구부 2건, 지붕부 6건 의장은 5건에 해당한다.

기단부는 1698년 8월 양상도회와 함께 계단부의 회칠이 박락되어있음이 조사되었다. 가구부에서는 1680년 대량상부에 누수가 확인된 내용과 1683년 8월 전각 기둥에 갈라짐이 확인된 내용 등 2건에 해당한다.

지붕부는 목릉 정자각 훼손 현황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양상도회 6건과 기와의 파손내용이다.

양상도회는 건원릉과 같이 모두 박락된 훼손 현황으로 확인되었고, 기와는 곳곳이 파손되었음을 설명하였다. 의장에서는 단청이 희미해진 내용이 5건, 그 외 벽이 찢어지고 터진 것(綻破)으로 표현된 내용이 1건이었다.

蟲蠹所傷, 折損綻破,

벌레와 좁에 상하여 부러지고 터지고 깨져서,³²⁾

벽의 훼손은 한자의 의미 그대로인 찢어졌다라는 표현보다는, 갈라짐과 터짐을 의미하는 단어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다. 조선왕조실록 내에서 확인된 용례 또한 터지고 깨졌다라는 의미로 국역되어 있다.

3-4. 1675~1713년 정자각 훼손 양상

17세기 후반 등록의 기록에서 확인되는 훼손 관련 단어들은 훼손이 발생한 위치에 대한 표현과 훼손 현황 또는 원인에 따라 균열·이격, 이탈, 파손, 부후, 습기, 퇴색, 박락, 기울기 등 다양하게 확인된다. 등록 상에서 건물의 내 훼손은 기단부에서는 부재끼리의 이격, 박락과 부재 자체의 파손(전돌, 박석 등)이 가장 많이 확인된다. 가구부에서는 균열과 부재끼리의 이격이 대부분이며, 지붕과 접해있는 추녀, 연목, 부연 등은 누수의 피해가 가장 잦다. 지붕부는 누수에 대한 피해가 가장 잦고 양상도회는 박락이 훼손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의장은 단청에 대한 훼손 현황은 모두 희미해진 것에 관한 내용이었으며, 이외 일부 내용으로 벽체의 박락이 확인된다.

먼저 건원릉의 위치별 훼손은 다음과 같다. 기단부의 훼손은 계단과 포전(방전)의 훼손이었다. 계단은 부재의 동퇴(動退)로 인한 회칠의 박락(剝落)의 훼손 양상을 보이고 포석은 깨져 파손된 경우가 주였다. 가구부에서는 부연과 연목을 중심으로 습기, 누수가 확인되었고 이로 인한 부후 또는 기울어짐까지도 확인할 수 있었다. 연목과 연목 사이의 양토의 박락도 일부 확인되고 있다. 지붕부는 마루 상부의 양상에 회를 바른 곳의 박락과 기와의 파손이 확인된다. 의장에서는 단청의 자연적 요인에 의한 퇴색이 주를 이룬다. 각 위치별 훼손 양상은 총 23건의 훼손 중 기단부 8건(34.8%), 가구부 4건(17.4%), 지붕부 6건(26.1%), 의장 5건(21.3%) 등 기단부에서 가장 많은 훼손 양상을 보인다.

승릉은 기단부에서는 박석과 전돌, 기초, 계단 등에서 훼손이 확인된다. 1677~80년 사이의 기단부 훼손이

가장 많은데, 물의 유입으로 인한 박석의 파손, 계단의 이격으로 인한 전돌의 파손 등이 확인된다. 가구부에서는 1675년과 1698년에는 비가 새는 누수로 인한 습기가 회침부와 연목에서 확인되었고 이 외에는 추녀의 박락, 기둥의 훼손 등이 있었다. 1699년 대량의 균열과 부재의 이격은 향후 건물의 수리까지 이어진 중요한 훼손 기록이다. 지붕부는 총 11건 중 8건이 양상도회의 박락이었는데 이 원인으로는 동결융해와 신구 부재의 괴리 등이 있었다. 그 외 기와의 파손도 확인할 수 있다. 의장에서는 단청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희미해진 것과 벽체의 박락이 확인된다. 위치별 훼손은 총 38건 중 기단부 10건(26.3%), 가구부 8건(21.1%), 지붕부 11건(28.9%), 의장 9건(23.7%)으로 지붕부의 훼손이 가장 많았다.

목릉은 기단부는 계단의 회칠 박락 1건이 확인되었고 가구부에서는 비가 새며 발생한 대량의 누수와 기둥의 갈라짐(罅隙)이 조사되었다. 지붕부는 양상도회의 박락이 주를 이뤘고 의장은 단청이 오래되어 희미해진 경우가 전반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외에도 벽체의 훼손도 확인되었다. 총 14건의 기록 중 기단부 1건(7.1%), 가구부 2건(14.3%), 지붕부 6건(42.9%), 의장 5건(35.7%)으로 지붕부의 훼손이 가장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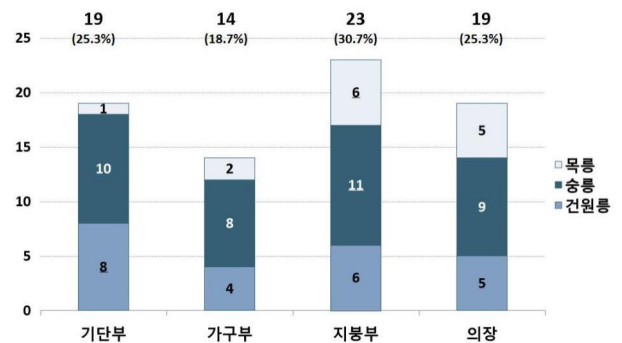


그림 4. 1675~1713년 왕릉 정자각 훼손양상

왕릉 정자각 세 곳의 훼손은 위치별로 기단부는 19건(25.3%), 가구부는 14건(18.7%), 지붕부 23건(30.7%), 의장 19건(25.3%) 등 총 75건이었다. 건원릉은 기단부의 훼손이, 승릉과 목릉은 누수로 인한 지붕부의 훼손이 가장 많은 양상을 보였으며 전체적으로는 지붕부의 훼손이 가장 빈번하게 점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기단부의 계단과 지붕부의 양상도회의 훼손은 회칠의 박락이었다. 계단의 박락 원인은 이격으로 인한 것과 달리 양상도회는 외기 노출과 신재료와 구부재의 차이가 원인으로 꼽혔다. 누수의 원인은 비로 인한 것이 대부분으

32) 『세종실록(世宗實錄)』, 세종 17년(1435)/5/21

46 논문

로 주요 훼손 부위 또한 지붕부가 많았다. 단청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퇴색된 것으로 새로 채색하는 방식으로 보수하였다.

4. 훼손의 기록방식

건물의 훼손을 표현하는 한자어로는 집탈(執頰), 탈처(頰處)로 표현해 훼손이 발생한 곳을 지칭하고 있다. 집탈은 남의 잘못을 드러내어 탈을 잡는다는 의미로 대부분 사용되고 있지만, 건물 자체에서는 문제가 발생한 곳을 확인한다는 의미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왕조실록에서도 죄인의 잘못을 드러내는 의미로 대부분 사용되었다.

上密遣中使，摘奸于永寧殿修改都監，時已報西牌矣。堂郎皆罷仕，中使執頰以啓。

상이 중사(中使)를 몰래 보내어 영녕전 수개 도감을 적간(摘奸)하게 했는데, 이때 시각이 이미 유시(酉時)였다. 당상과 낭관들이 모두 업무를 마감하고 귀가했었기 때문에 중사가 이를 **꼬투리로 잡아** 보고했다.³³⁾

… 此外丁字閣椽間丁粉有間間滲色處，蓋諸處執頰…

… 이 외 정자각 연목 사이 정분은 곳곳이 퇴색된 곳이 있어 옥개부 여러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³⁴⁾

훼손 현황에 대한 표현 중 균열·이격과 관련된 단어로는 극경(隙傾), 노극(露隙), 성극(成隙), 하극(罅隙), 부기세탁(浮起細拆), 동탁(凍拆), 탁렬(拆裂) 등으로 확인된다. 주로 극(隙)과 탁(拆)으로 틈이 벌어짐을 표현

표 6. 이격 관련 한자어

표현단어	의미	주요 한자어
극(隙)	틈. 《훈민정음》에서는 ‘뽻’으로 표기 ³⁵⁾	극(隙)
공극(孔隙)	작은 구멍이나 빈틈 ³⁶⁾	
하극(罅隙)	갈라진 틈, 틈새	
극경(隙傾)	틈이 벌어지고 기울어짐	
노극(露隙)	틈이 생기다	
성극(成隙)	틈이 일어나다(생기다)	탁(拆)
부기세탁(浮起細拆)	들고 일어나 가늘게 터지다(갈라지다)	
동탁(凍拆)	얼어 터지다(갈라지다)	
탁렬(拆裂)	터져 갈라짐 ³⁷⁾	
희소(稀疎)	사이나 틈이 생김, 희활(稀闊)	

* 국립국어원이나 사전 등에서 확인되지 않는 한자어는 한자어의 의미에 따라 자체 해석하였음

33) 『현종개수실록(顯宗改修實錄)』, 현종 8년(1667)/5/22

34) 『각릉수리등록(各陵修理謄錄)』 제1권, 숙종 원년(1675)/3/초1

35)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한국고전용어사전』

하여 사이가 벌어짐을 의미하는 이격(離隔)을 표현하고 있다. 극(隙)은 순우리말 ‘뽻’인 틈과 동일한 단어로 사용되어 왔지만 단어 자체가 틈이 있다는 동사로도 해석할 수 있다. 탁(拆)은 부재의 터짐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된 단어이다. 앞에 터진 모양이나 사유를 함께 붙여 훼손 현황을 설명해주고 있다.

이와 달리 퇴(退)는 아예 부재가 떨어져 나간 상태인 이탈(離脫)의 표현으로 사용되었다. 움직임으로 인한 벌어짐은 동퇴(動退), 아예 무너진 붕괴를 의미하는 붕퇴(崩頽), 점점 쇠퇴하여 부재가 떨어지고 있는 현상을 표현한 점퇴(漸退) 무너져 떨어지는 퇴락(頽落), 비퇴(圯退), 이외 떨어져 나간 것을 표현하는 퇴출(退出), 이퇴(離退) 등이 확인되었다.

표 7. 이탈 관련 한자어

표현단어	의미	주요 한자어
동퇴(動退)	연결된 곳이 떨어져 물러남	퇴(退)
붕퇴(崩頽)	무너지고 깨어짐, 붕괴(崩壞) ³⁸⁾	
점퇴(漸退)	점점 뒤로 물러남 ³⁹⁾	
퇴락(頽落)	납아서 무너지고 떨어짐. ≒퇴당 ⁴⁰⁾	
비퇴(圯退)	무너져 떨어짐	
퇴출(退出)	물러나서 나감 ⁴¹⁾	
이퇴(離退)	떼어져 떨어짐	

* 국립국어원이나 사전 등에서 확인되지 않는 한자어는 한자어의 의미에 맞춰 해석하였음

부재가 깨어져 훼손이 발생되었을 때는 파쇄(破碎), 깨어져 부스러짐, 파상(破傷, 깨져 상함)으로 표현하였고 다수의 부재 또는 범위가 넓어질 경우 붕퇴(崩頽), 퇴락(頽落)으로 표현하였다.

표 8. 들뜸 관련 한자어

표현단어	의미	주요 한자어
부기(浮起)	들고 일어남(들뜸)	부(浮)
부동(浮動)	들뜸 물이나 공기 중에 떠서 움직임 ⁴²⁾	

* 국립국어원이나 사전 등에서 확인되지 않는 한자어는 한자어의 의미에 맞춰 해석하였음

36)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37)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38)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39)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40)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4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들뜨는 현상은 부기(浮起), 부동(浮動)으로 표현하였다. 습기(濕氣)와 관련된 단어는 다른 훼손 현황보다 자세히 확인된다. 물이 새는 것과 관련된 우루(雨漏), 류습(流濕), 물기에 젖은 상태를 표현한 습기(濕氣), 침습(沾濕), 현재 진행되고 있는 습기에 대한 부분은 삼루(滲漏), 침윤(浸潤), 유입(流入)으로 설명하였다. 누수로 발생한 목재의 부후는 부파(腐破)로 표현하였다.

표 9. 물과 관련된 훼손현황

현황	표현단어
물이 새는 것	우루(雨漏), 류습(流濕)
물기에 젖은 상태	습기(濕氣), 침습(沾濕)
습기가 진행 중인 상태	삼루(滲漏), 삼습(滲濕) 침윤(浸潤), 유입(流入)

* 국립국어원이나 사전 등에서 확인되지 않는 한자어는 한자어의 의미에 맞춰 해석하였음

부재의 탈락은 주요 한자어 추(墜)가 사용된 절추(折墜)와 추락(墜落)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두 단어 모두 기와가 훼손되어 떨어진 것을 설명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으며 이로 인해 실제 지붕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표현에 사용되는 단어로 해석된다. 현재 문화재 수리에서 표면이 떨어지는 것을 표현하는 박락(剝落)은 17세기에도 같은 의미와 단어로 사용되었다.

표 10. 박락·탈락 관련 한자어

표현단어	의미	주요 한자어
절추(折墜)	부러져 떨어짐	추(墜)
추락(墜落)	높은 곳에서 떨어짐 ⁴³⁾	
박락(剝落)	벗겨져 떨어짐 돌이나 쇠붙이에 새긴 그림이나 글씨가 오래 묵어 굵히고 깎이어서 떨어짐 ⁴⁴⁾	

* 국립국어원이나 사전 등에서 확인되지 않는 한자어는 한자어의 의미에 맞춰 해석하였음

이 외 빛이 바래는, 색이 얼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퇴색의 표현은 투색(滲色), 만환(漫漶)으로, 기울어짐에 대한 표현은 경측(傾側), 우묵하게 패었다는 표현으로 저함(低陷)으로 표현하였다.

균열·이격·파손과 관련된 단어들은 재료와 위치에 따라 빈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주로 부재 내에서 갈라

4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43)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44)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45)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표 11. 기타 훼손 관련 한자어

표현단어	의미	주요 한자어
경함(傾陷)	남을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함	함(陷)
하함(下陷)	아래로 처진 것, 함몰하다.	
자궤(自潰)	저절로 찌부러지거나 몽그러짐 ⁴⁵⁾	
집탈(執顛)	탈을 잡음	

* 국립국어원이나 사전 등에서 확인되지 않는 한자어는 한자어의 의미에 맞춰 해석하였음

짐, 터짐 등이 발생하는 목재의 훼손은 극(隙)이 들어간 한자어로 표현된 것이 대부분이었고, 기와·전돌 등 균열과 깨짐이 발생하는 부재들은 파(破)가 들어가는 한자어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박락은 양상도회와 기단부의 회를 바른 부분 등 회가 사용된 곳에서 가장 많이 확인된 단어로 외부 표면이 떨어지는 표현에 모두 사용되는 단어로 보인다.

5. 결론

이상에서 본 연구를 통해 국가지정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건원릉, 승릉, 목릉 3곳의 정자각의 17세기 수리와 관련된 기록을 살펴본 바를 관리체계, 훼손 현황, 표현 단어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왕릉 정자각은 봄과 가을에는 관찰사가, 매 5일에는 수릉관이 매일 밤낮으로는 수복이 정기적으로 관리하였고 자연재해나 예상치 못한 훼손이 발견된 긴급 상황인 경우에는 바로 점검하여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었다. 상시 또는 비상시 모두 왕릉에서 조정으로 보고한 후 임금께 보고되는 관리체계를 따랐으며, 임금의 재가 후에는 호조와 지자체의 협조를 통해 수리를 진행하였다.

둘째, 왕릉의 건축물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건물별 훼손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보고하였다. 왕릉 정자각 세 곳의 훼손은 위치별로 기단부는 19건(25.3%), 가구부는 14건(18.7%), 지붕부 23건(30.7%), 의장 19건(25.3%) 등 총 75건으로 전체적으로는 지붕부의 훼손이 가장 빈번하게 점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건원릉은 기단부에서 가장 많은 훼손이 확인되었고, 승릉은 지붕부에서 누수가 많이 확인되었고, 가구부 대량의 훼손을 자세히 기록하였다. 목릉은 지붕부의 훼손이 가장 많았다.

셋째, 훼손 현황에 대한 표현은 이격, 이탈, 터짐, 파손, 들뜸, 습기, 누수, 박락 등 다양하게 확인된다. 그중

48 논문

기단부는 박락과 이격, 가구부는 균열, 누수, 지붕부는 누수와 양상도회의 박락, 의장은 단청의 희미함과 벽체의 박락 등으로 주요 피해기록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이는 조선 후기 목조건축물의 훼손을 어떻게 조사하고 기록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본 연구는 많은 연구자에 의해 다뤄지지 않았던 『각릉수리등록』이라는 사료 속에서 정자각의 관리와 훼손을 중심으로 관련된 자료들을 정리한 것이다. 1675년부터 1713년 사이에 왕릉의 가장 중심건물인 정자각을 어떻게 점검하고 기록으로 남겨 관리하였는지를 포함함으로써 당시 건축물의 현황에 관해 세세한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보다 더 많은 사료 속에 내포되어 있을 건축물의 관리와 훼손, 수리 등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도 의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각릉수리등록(各陵修理謄錄)』
2. 『경국대전(經國大典)』
3. 『세종실록(世宗實錄)』
4. 『숙종실록(肅宗實錄)』
5.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6. 『현종개수실록(顯宗改修實錄)』
7.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8.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한국고전용어사전』
9.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0. 경기문화재단, 『화성성역의궤 건축용어집』, 경기, 2007
11. 김상협, 「조선왕릉 석실 및 능상구조의 변천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12. 김수연, 「궁궐 및 조선왕릉 문화재 보수·관리 발전방안 연구」,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13. 김은선, 「조선시대 왕릉 석인상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14. 문영식, 「조선후기 산릉도감의궤에 나타난 장인의 조영활동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15. 문화재청, 『구리 동구릉 목릉 정자각 정밀실측조사보고서』, 대전, 2013
16. 문화재청, 『구리 동구릉 송릉 정자각 정밀실측조사보고서』, 대전, 2013
17. 문화재청, 『동구릉 건원릉 정자각 및 비각 수리보고서』, 대전, 2006
18. 문화재청, 『동구릉 송릉 정자각 보수공사 수리보고서』, 대전, 2021
19. 신지혜, 「조선 숙종대 왕실 상장례 설행공간의 건축특성-빈전·산릉·혼전을 대상으로-」,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20. 우희중, 「조선후기 왕릉재실 공간구성의 변천-산릉도감의궤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21. 이상명, 「산릉의궤 정자각을 통해 본 조선후기 관영건축의 시공기술」,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22. 차문성, 「조선왕릉 석물과 비석의 제작기법 연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1

접수(2023.02.25.)

수정(2023.04.17.)

게재확정(2023.04.26.)